한전 공사계약 비리 의혹 수사 본격화

광주지검, 업자와 뒷돈 거래 혐의 직원 3명 체포

광주·전남본부 등 3곳 압수수색…입찰서류 조사

검찰이 한국전력의 공사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한전 협력업체 관계자들에 이어 한전 직원 3명을 체포하고 곧바로 한전 광주·전남 지역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공사 계약 과정의 불법성 여부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범)는 12일 한전 광주·전남 지역본부를 비롯, 전남 나주지사와 서울지역 지사에 근무중인 한전 직원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는 한편, 이들 근무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근무지에서 확보한 계약·입찰 관련 서류 등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간 상황이다.

검찰에 체포된 직원 3명은 전임지 또는 현 근무지인 나주지사의 업체간 공사계약 과정에서 뒷돈 거래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전기공사업자들에게 일감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한전 공사를 수주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업체들이 억대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파악하고 사용처를 추적하던 중이었다.

이 때문에 한전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단순한 개인 비리 차원을 넘어 전기 관련 업체들의 비자금 조성 정황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전의 경우 각 지사별로 2년 단위로 관련 업체를 선정해 계약하는 방식으로 전기공사 등을 추진해왔고 해당 업체는 일정 기간동안 안정적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일각에서 업체와 한전 관계자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400억원대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사용료 지급에 대한 광주시와 재건축조합 간 논쟁이 법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국제대회 최초로 도심 재건축 방식으로 시공 중인 U대회 선수촌(35개동·3726세대)은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광주시 서구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467억 vs 36억…U대회 선수촌 사용료 갈등 결국 법정으로

〈재건축조합〉 〈광주시〉

이견 못좁혀…재건축조합 소송

6개월 앞 대회 준비 차질 우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사용료 문제가 끝내 법정 공방으로 치닫게 됐다. 법정 소송이 불가피한 만큼 6개월 앞으로 임박한 대회에도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되고 있다.

1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최근 광주시와 광주U대회조직위원회,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467억5000만원 상당의 임대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광주시 등과 대회 기간 동안의 선수촌 사용료를 놓고 진행해온 협상이 무산된 데 따라 조합원 2461명 등 2757세대가 참여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대회 기간 선수촌으로 사용되는 아파트에 대한 사용료로 467억원을 달라는 게 소송의 골자다.

조합측은 아파트 임시 사용이 가능한 5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주민들이 입주하는 내년 3월까지 최소 11개월치 사용료 등을 광주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하서 조합 이사는 "지난 2011년 체결한 조합·도시공사·현대건설 등 3자간 업무협약서에 임대료 적용기간이 명백히 나와 있는데도 광주시 등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소송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광주시는 같은 '2015 광주하계U대회 선수촌 건립' 협약서를 근거로 36억을 제시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임시사용 승인이 이뤄지는 4월부터 대회 폐막 뒤 선수촌을 넘기는 9월까지 126일에 대한 임대료만 지불할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또 인천 아시아게임 선수촌 사용료로 35억원이 지급된 점도 조합측에 제시한 상황이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국제적 행사인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수촌 사용료 문제가 자칫 대회에 차질을 불러올 지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

한편, 광주 하계 U대회 선수촌은 광주시 서구 화정2동 일대에 건설중이며 현재 총 35개동(3726세대·지상15~33층)의 골조공사가 완료되는 등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그래도 따뜻한 세상

할머니 1억 예금통장 분실…택시기사·경찰 덕택에 찾아

1억원 상당의 예금이 든 통장과 현금 80만원이 든 가방을 택시에 두고 내린 70대 할머니가 택시기사와 경찰 덕분에 무사히 가방을 되찾았다.

1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고성진(52)씨는 지난 9일 새벽 4시30분께 광산구 송정공원 입구에서 김모(75) 할머니를 태웠다. 양동에서 장사를 하는 김 할머니는 시장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인근 버스 승강장에서 내렸고 택시기사 고씨도 손님을 찾아 부지런히 돌아다녔다.

10분이나 흘렀을까. 상무지구에서 손님을 태우려던 고씨의 눈에 붉은색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앞서 탔던 할머니가 뒷좌석에 두고 내린 것이다. 허름한 가방에는 놀랍게도 1억원 상당의 예금이 든 통장 6개와 현금 80만원이 있었다.

고씨는 승객에게 양해를 구한 뒤 곧장 할머니가 내린 곳으로 갔지만 할머니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고씨는 이어 할머니가 장사를 한다는 양동시장으로 향하던 중 농성파출소를 먼저 찾았다. 시장에서 할머니를 찾는 것은 쉽지 않지만 가방을 잃은 할머니가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해올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때마침 할머니도 송정파출소에 분실 신고를 했고, 잃어버린 가방을 1시간여만에 되찾을 수 있었다.

김 할머니는 "평생 모은 재산이 든 가방을 잃어버려 앞이 캄캄했다. 아직도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며 연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형호기자 khh@

"진짜 사나이들 환영합니다"

31사단 올해 첫 입영 행사

오늘 248명 입소

육군 제31 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새해 첫 입영행사가 진행된다.

육군 31사단은 13일 오후 1시40분부터 신병교육대대 충장관에서 올해 첫 입영문화제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입영문화제는 군입대의 우울한 분위기를 벗어나 누군가의 아들 또는 애인이었을 장병들이 '진짜 사나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하하는 '의식'으로 전환하고자 계획된 행사다.

행사는 장병과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악 공연을 시작으로 자유발언대, 간부 및 신병교육 소개, 이별과 다짐 순으로 진행돼 오후 4시께 종료될 예정이다.

자유발언대 시간에는 평소 깊이 있는 대화가 부족한 장병과 부모,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할 연인 등이 그동안 감춰온 진심과 앞으로 군생활에 대한 응원, 격려를 주고 받을 수 있다. 또 입영 후 군에서 사용하게 될 보급물품들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식전 전시행사도 이뤄진다.

한편, 이날 입영대상자는 현역 및 상근예비역 등 총 248명으로 이들은 앞으로 5주간 개인화기와 각개전투, 수류탄 및 화생방 등 강도 높은 신병훈련을 거쳐 각급 부대로 배치된다.

/ 박기웅기자 pboxer@

"군 복무 중 질병 악화 땐 국가유공자 인정"

광주고법 행정부 판결

군 복무 중 생긴 질병이 아니라도 근무중 급속히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 1 행정부(부장판사 박병칠)는 "군 복무 과정에서 요통이 발생했고 운전병으로 근무하면서 과중한 근무여건 및 무리한 교육훈련으로 질병이 급격하게 악화됐는데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26)씨가 순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적용 비대상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은 김씨가 전역 9개월 뒤 받은 추간판탈출증(요추 4, 5번)과 군 복무 중 진단받은 게 다르고 입대 2개월도 못돼 허리 통증이 발생한 점에 추간판탈출증 발병원인 등을 고려하면 해당 질병과 공무 수행 간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로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질병이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교육훈련으로 인해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육군에 입대, 운전병으로 복무하다 제대한 지 9개월 뒤인 2011년 8월 추간판탈출증 제거수술을 받았고 이듬해 '군 복무 중 이뤄진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으로 발생한 병'이라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완도 미역공장 화재

1시간여만에 진화

12일 오후 3시15분께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농공단지 내 G미역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119에 의해 1시간15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공장 1개동(1116㎡·337평)이 모두 탔으며 직원 임모(여·53)씨가 연기를 흡입해 완도대성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휴식시간이어서 업체대표 홍모(37)씨 등 직원 5명이 긴급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미역포장실 쪽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누전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여친의 결별선언에 격분…술집서 흉기 들고 소란

쌍나팔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친구의 결별 선언에 격분, 술집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30대 남성이 경찰서행.

○…12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최모(39)씨는 지난 11일 밤 9시10분께 광산구 산정동 K주점에서 여자친구 김모(54)씨와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 1개를 바닥에 내동댕이친 뒤 이를 제지하던 손님 이모(43)씨의 뺨을 때린 데 이어 흉기를 들고서 손님들을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것.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귀던 애인이 대뜸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치솟았는데 그렇다고 남자가 여자를 때릴 순 없고 해서 손님에게 행패를 부렸던 것 같다"며 "화가 나서 얼떨결에 흉기까지 손에 들게 됐는데 이게 다 술 때문인 것 같다"며 황당한 변명. /박기웅기자 pboxe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9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4타경 16652	1	서구 운천로56번길 7, 102동 3층 302호 [금호동,금호동한국아파트] 69.59㎡	아파트	133,000,000 133,000,000	
2014타경 19446	1	북구 운암동 68 백산블루밍메가씨티 205동 5층 502호 152.795㎡	아파트	351,000,000 351,000,000	
2014타경 19576	1	광산구 도산동 1136-1 호반아파트 101동 8층 810호 59.95㎡	아파트	89,700,000 89,700,000	
2014타경 19729	1	광산구 우산동 1311-1 대광로제비앙 104동 6층 602호 109.7772㎡	아파트	240,000,000 240,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4타경 17099	1	담양군 담양읍 가산리 41-1 342㎡ 담양군 담양읍 고가외길 148 49.92㎡[현황 삼불력조합석지붕] 부속건물 창고 13.9㎡	대 단독주택	5,136,610 5,136,610	일괄매각.이윤숙 지분11분의2
2014타경 18016	1	나주시 남평읍 교원리 191 327㎡ 나주시 남평읍 남평향교길 29 99.81㎡ 제시외 창고 등 14㎡	대 단독주택	123,780,800 123,780,800	일괄매각.제시외 건물포함
2014타경 18740	1	곡성군 삼기면 옥등리 309-1 192㎡ 곡성군 삼기면 곡순로 1437 84.72㎡ 제시외 창고 등 14.2㎡	대 단독주택	36,355,200 36,355,200	일괄매각.제시외 건물포함
2014타경 19309	1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66 463㎡ 화순군 도곡면 원화길 34-3 54.5㎡ 농업생산시설 6㎡ 농업생산시설 32㎡ 제시외 창고 등 49㎡[제시외건물포함]	대 농가주택	66,616,000 66,616,000	일괄매각.공부상 등재된농업생산시설6㎡,농업생산시설32㎡멸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대지/임야/전답]					
2014타경 15161	1	동구 월남동 142 1336㎡	답	32,064,000 32,064,000	개발제한구역.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18917	1	나주시 왕곡면 송죽리 산132-2 329㎡	임야	67,583,000 67,583,0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목록1현황답,목록3입부현황도로
		동소 601 2870㎡	답		
		동소 601-5 215㎡	답		
		동소 601-6 1118㎡	답		
		동소 601-7 409㎡	답		
		동소 601-8 470㎡	답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4타경 17853	1	동구 천변우로 453, 9층 904호 [금동,코일] 466.41㎡[갑은동903호와같은수영장으로 본건과현황구분경계선없음]	근린시설	476,000,000 476,000,000	전유면적내에전유공유부분66.88㎡ 포함되어있음
2014타경 19002	1	남구 지석동 206-5 335㎡ 남구 포충로 588 82.58㎡ 부속건물 79.24㎡ 주택 38.0㎡ 제시외 통로 등 81.3㎡[제시외건물포함]	대 주택및점포	61,411,600 61,411,600	일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김장선지분32분의10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법원청공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동일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5. 1. 28. [수]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5. 2. 4. [수]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관리원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종료와 동시에 반환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여,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손목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제남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받고, 국민주택채권매입필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하셔를 권담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변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중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유재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해드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하나 정고, 대금납부신청하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오며,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5. 1. 13.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윤영수